



1,400년 전 사비의 기억을 걷다 찬란했던 백제의 꽃, 부여 역사 산책

허준성 | 여행작가

백제의 가장 화려했던 사비 도읍 시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부여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1,400여 년을 이어왔던 백제는 마지막 부여에서 꽃을 피우고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 마지막 123년의 기억이 부여 곳곳에서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부여 여행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백제 문화의 정수 백제금동대향로를 먼저 보고, 향로가 발견되었던 부여왕릉원을 가면 된다. 전체적인 백제 역사를 한눈에 보기에는 백제문화단지가 좋다.



Course



백제의 찬란한 기억이 보물로 피어나는 곳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에는 금동관음보살입상,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등 여러 국보가 있지만 단연 '백제금동대향로'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1993년 능산리 사찰 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조금의 손상도 없이 원형 그대로 세상에 나타났다. 높이가 61.8cm나 되는 대형 향로로 중국 등 주변 나라의 향로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되는 크기다.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의 다리 위 연꽃에는 스물다섯 마리의 동물이 새겨져 있다. 그 위로는 신선들이 사는 신산을 표현하고, 다섯 악사와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하며 가장 높은 곳에는 봉황이 자리한다. 불교는 물론 유교와 도교 사상까지 모두 아우르려 했던 백제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매 정시에는 박물관 전시동 중앙에서 백제금동대향로와 백제 문양을 주제로 한 실감 콘텐츠가 상영된다.

INFO

-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 041-833-8562
- 🕒 09:00~18:00, 월요일 휴무





백제 후기 사비 시대의 왕과 왕족의 분묘로 추정되는 곳이다. 부여왕릉원이 개방되고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는 도중에 백제 문화의 정수 '백제금동대향로'를 능산리사지에서 발견하였다. 능산리사지는 백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위덕왕이 세운 사찰로 왕릉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향로의 훼손을 막기 위해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능산리사지 한 곳에는 향로가 발견되었던 위치에 당시 발굴 직전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왕릉원과 능산리사지 옆에는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부여 나성'의 일부도 만나볼 수 있다.

흙속에 묻혔던 보물을 찾아가는 길
**부여왕릉원과
부여능산리사지**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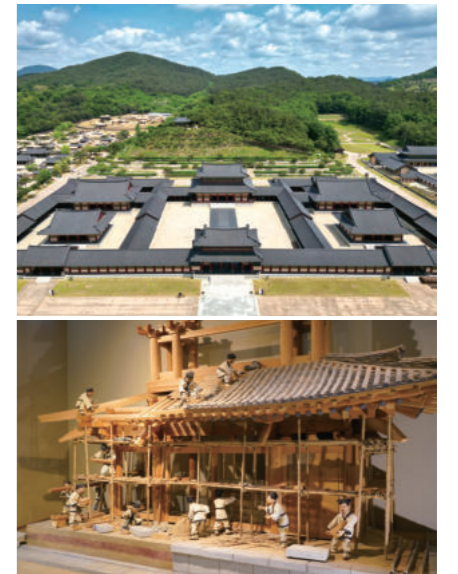
-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8-1
- ☎ 041-830-2890
- 🕒 09:00~18:00(동절기 ~17:00)



살아숨쉬는 백제 속으로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 하나만 봐도 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 백제문화단지 내에는 국내 최초 백제사 전문 박물관인 백제역사문화관부터 백제 개국 초기의 위례성과 계층별 주거문화를 나타내는 백제생활문화마을,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된 사찰 능사(능산리사지), 백제 왕궁 사비궁을 복원해 놓았다. 전기 인력거와 전기 어차 타기 등 체험 거리도 많고 여름과 주말에는 저녁 10시까지 야간 개장도 이어진다.



INFO

-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164-1(주차장)
- ☎ 041-408-7290
- 🕒 09:00~18:00(동절기 ~17:00), 월요일 휴무





버스가배가되는마법,
'수륙양용 시티투어'

부여수륙양용 시티투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시티투어'를 이용하면 그 지역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추천하는 편인데, 부여의 시티버스는 더욱 특별하다. 다른 아닌 '수륙양용 버스'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시티 투어에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해서 백마강을 가로지르고, 낙화암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색다른 시선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길 위를 달리던 버스가 스르륵 강물을 가르며 시원스레 달리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워낙 인기가 좋아 주말에는 일찍 마감되는 편이다. 미리 누리집에서 예약해야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INFO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99
- 041-408-8777
- 09:30~16:30, 월요일 휴무



백제 정원 예술의 정수 궁남지



현대까지 남아있는 정원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으로 알려져 있다. 약 9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백련, 홍련, 가시연이 가득하다. 크고 작은 연못들이 촘촘히 이어진 형태로 연못 사이를 걷는 재미가 있다. 궁남지는 백제 무왕의 탄생 설화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무왕)을 여기 궁남지에서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왕 35년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 궁남지라 부르게 되었다.

INFO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52-1(주차장)

